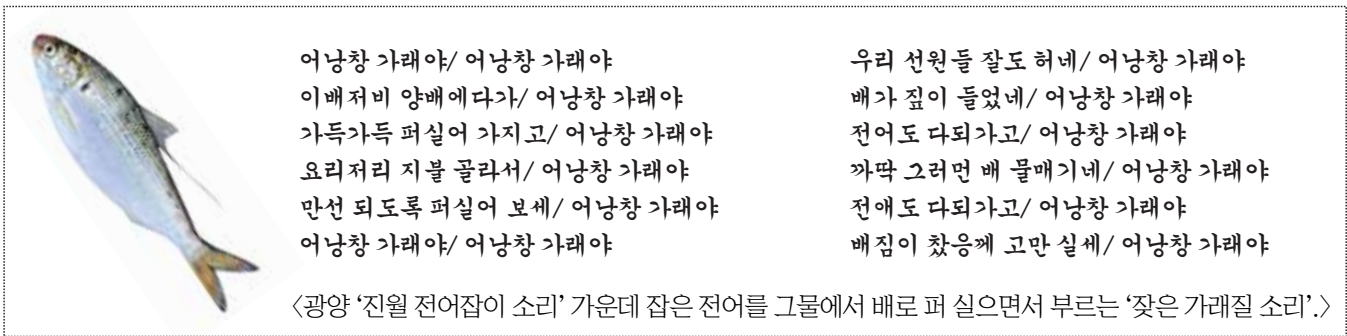




어남창 가래야/ 어남창 가래야
이배저비 양배에다가/ 어남창 가래야
가득가득 퍼실어 가지고/ 어남창 가래야
요리저리 지를 골라서/ 어남창 가래야
만선 되도록 퍼실어 보세/ 어남창 가래야
어남창 가래야/ 어남창 가래야

우리 선원들 잡도 허네/ 어남창 가래야
배가 짙이 들었네/ 어남창 가래야
전어도 다되가고/ 어남창 가래야
짜딱 그러면 배 물매기네/ 어남창 가래야
전에도 다되가고/ 어남창 가래야
배집이 왔음에 고만 실세/ 어남창 가래야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가운데 잡은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퍼 실으면서 부르는 '잣은 가래질 소리'.〉

‘진월 전어잡이 소리’ 구성진 가락 광양 어부 애환 고스란히 담겼네

“15년 전만해도 해상에서 전어배를 타고 해상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전어배가 없어 육상에서 전어잡이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보존회'를 이끄는 서형일(62) 회장의 말이다.

섬진강 물길이 광양만 바다와 합류하는 망덕포구 앞바다와 광양만 일대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을철이면 전어잡이가 성행했다. 두척의 배가 한 조를 이뤄 전어를 잡았는데, 전어떼를 만나면 전어떼를 동그렇게 에워싼 다음 그물을 당겨 올렸다. 이때 전어잡이 어부들은 매우 구성지고 애잔하면서도 흥겨운 노래를 불렀다.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보존회'는 지난 1일 전남도 무형문화재(제57호) 지정 2주년 및 보존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행사를 갖고 전승·보존을 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전어잡이 어부 애환 고스란히 담겨= 이번 공개행사는 용왕제를 통해 전어 배

무형문화재 2주년 기념 행사
소리보존회 전수관 건립 절실
전어잡이 배 원형 복원 등
으뜸 문화유산 맥 이어져야

의 안전한 항해와 만선의 기원과 함께 15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용왕님께 기원하는 행사도 곁들였다.

광양 전어잡이 소리는 ▲전어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갈 때 부르는 '노젓는 소리' ▲그물을 내릴 때 부르는 '그물내리는 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그물에 든 고기를 가래를 가지고 뱃전으로 퍼 올리면서 부르는 '가래질 소리' ▲선창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만선(滿船) 긴소리' ▲도부꾼(잡아온 전어를 외지로 나가 판매하는 사람) 퍼주는 가래질 소리 등 총 6소리로 구성돼 전해지고 있다.

특히 '노젓는 소리'는 새벽에 어부들이 일을 나가다 보니 어부들의 잠도 깨울겸

배를 타고 나가면서 만나는 지형지물 위주로 만들어져 가사가 다양하다.

또 '도부꾼 퍼주는 가래질 소리'는 잡아온 전어를 도부꾼이나 상인들에게 담아줄때 내는 소리로 흥겨운 가사행식이 특징이다.

이처럼 전어잡이 소리는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부터 포구로 돌아와 판매할 때까지 어부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리보존회 전수관 건립 절실=전어잡이 소리가 전승되고 있는 곳은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신담마을이다.

주민들은 1997년 제25회 남도민속문화축제에서 민요부문 장려상을 받은 것에 1999년 8월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를 창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어잡이 소리 전승을 위해 매월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도 대표로 참가해 금상 및 연기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어(鰲魚)는 '짐 나간 머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할 정도로 가을철 대표적인 별미이다. 섬진강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광양 망덕포구 앞바다에서 예로부터 전어잡이가 성행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보존회 회원들이 '제2회 진월 전어축제'에서 해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서형일 보존회장은 "전해의 자연조건이 갖춰진 섬진강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어잡이 소리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리보존회 전수관 건립과 전어잡이배 원형복원이 시급하다"며 "관객들의 불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광양 매화축제 기간에 소리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월 전어잡이 소리'는 광양만 일대 어민들이 불렀던 어로(漁撈) 민요로, 광양시 진월면 주민들에 의해 광양만 어업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배영재기자 byj@



지난 2013년 10월 열린 '제 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연 모습. 일반부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연기상을 수상했다.

광양시청앞 광장 어린이 물놀이장 대변신

내일·모레 이틀간...페이스페인팅 등 행사도 다채

광양시청앞 시민광장이 8~9일 이틀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광양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워터 슬라이드(2면), 물놀이 풀(1면)을 비롯해 종합상황실, 방송시설, 의무실, 탈의실, 몽골텐트, 이동식 화장실 등을 갖추고 물놀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종이접기,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물놀이 시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

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요금은 1인 1000원으로, 이용 대상은 초등·중학생과 보호자를 동반한 유아 등이다.

특히 광양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9 소방구조대에서 실시하는 1일 2회 인명구조 교육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구급차 및 의료지원 장비 등을 갖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6일 35.3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폭염주의보 3회, 폭염경보 2회 발령되는 등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현대판 과거시험’ 한시 짓기 실력 겨룬다

전국 유림 100여명
광양향교 명륜당서

전국 유림 100여명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광양향교 명륜당 앞뜰에서 한시(漢詩) 짓기 실력을 겨룬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향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시제로 한시를 지어 자유를 겨루는 행사로 현대판 과거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시 백일장의 시제는 '신재 최산두 선생 추모'(新齋 崔山斗 先生 追慕)로 정해졌다. 장원에게는 상금 100만 원, 차장원에게

는 상금 50만 원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33명에게 시상한다. 문의 광양향교 (061-797-2363)

한편 신재 최산두 선생은 1483년 광양 봉강면 부저리에서 태어났으며, 151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1514년 홍문관주서, 1516년 박사로 승진하고 이듬해 홍문관수찬·정언 등을 역임했다. 기묘사화로 화순 동북에 유배됐다가 1533년 풀려난 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유배생활 중 강당을 열어 후진을 양성해 김인후, 유희준과 같은 거유를 배출함으로써 호남의 도학을 크게 일으켰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백운장학회 31일까지 266명 장학생 선발

(재)백운장학회(이사장 정현복)는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재)백운장학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백운장학회는 올해 26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5억6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광양시 출신(광양시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지정기탁 수혜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대 진학생은 선발기준의 별도 공고일부터)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나 자녀이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대학생(2~3년제 대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 179명 내외, 서울대 진학생 20명, 특기장학생 35명, 선행장학생 8명, 연구장학생 1명, 유학생 2

명, 특기지도 우수학교 7개교, 지정기탁 장학생 12명, 향우자녀 2명 등이다.

선발 기준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분야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성적, 생활정도, 대학수능 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선발하며, 타 장학금 수혜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61-797-2246)

한편 (재)백운장학회는 광양시 출연과 기업체, 시민, 향우들의 자발적 기탁으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23억여 원을 조성, 3685명에게 56억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